

동향분석실

 심혜정 연구원
조빛나 연구위원

 02-6000-5159, hshim@kita.net
02-6000-5184, joybinna@kita.net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

한국무역 70년*의 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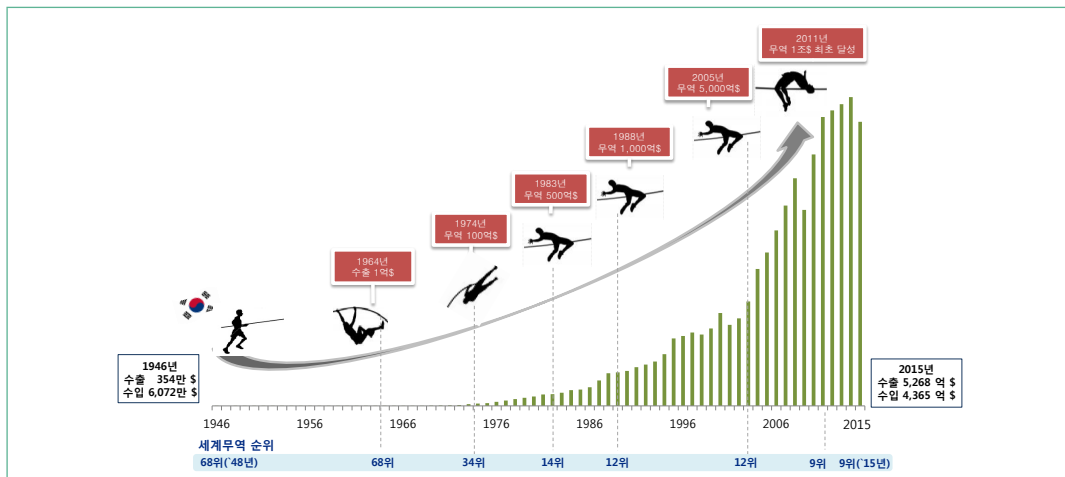
지난 70년간 우리 무역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1946년 수출 354만 달러, 수입 6,072만 달러에서 2015년 수출 5,268억 달러, 수입 4,365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무역순위도 60위권 밖에서 9위로 올라섰다. 수출상품은 과거 1차 상품에서 첨단 IT 제품으로 고도화되었으며, 수출대상국도 2개국에서 248개국으로 늘어나며 우리 무역이 질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대기업·중소기업 격차와 서비스 및 소비재 수출 기반 취약, 소수 품목에 대한 수출집중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70년간 적극적인 대외개방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 기적을 일궈왔듯이 앞으로도 시장개방과 해외진출을 통해 우리 무역의 성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01. 무역강국으로 발돋움

◎ 지난 70년간 한국무역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

- 1946년 수출 354만 달러, 수입 6,072만 달러에서 2011년 사상 처음으로 무역 1조 달러를 넘어선 이후 2015년 9,633억 달러를 기록
 - 2015년 기준 아프리카 53개국(9,437억 달러) 및 CIS 12개국(8,295억 달러) 전체 무역규모 보다 많은 수준

한국무역 70년



자료 : 한국무역협회, WTO

* 한국무역협회 창립 70주년(1946.7.31~2016.7.31)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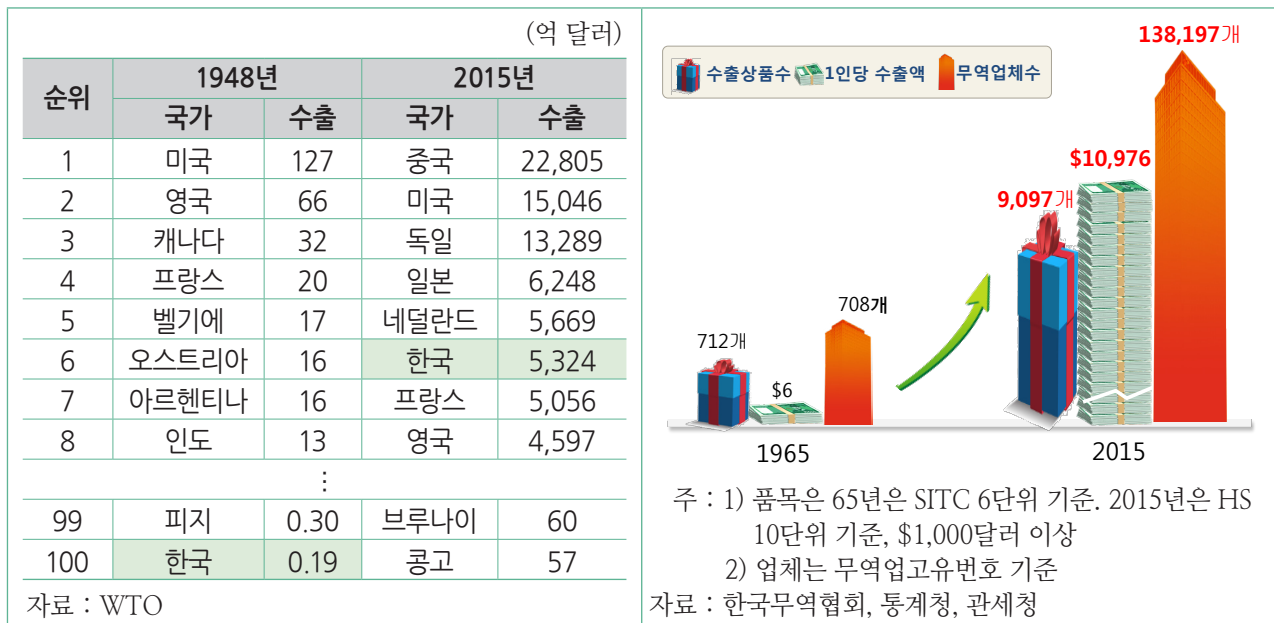
- 최초의 무역선(정크선 제외) : 1947년 2월 식염, 생고무 등을 실은 '페리우드호'가 인천항에 입항
- 우리나라 국적 최초의 무역선 : 조선우선(해운사) 소속의 앵도환
 - 1948년 2월 화신무역상사가 홍콩과 마카오에 건어물과 한천을 수출
- 무역 면허증 등록 1호 : 건설실업
 - 1946년 8월~47년 8월까지 한국인 528명, 중국인 15명이 무역업자 면허증을 교부받음
- 광복 후 최초 대외무역 관련 법령 : 1946년 1월 미 군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
 - 남한과 여타국간의 화물 등 거래시 군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 일체 대외거래를 금한다는 내용

◎ 과거 100위권 밖이던 우리 수출은 2015년 세계 6위로 올라섬

- 우리 수출은 1949~2015년 중 연평균 16.5% 증가하면서 세계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 8.8%를 상회. 현재 수출규모 1,000억 달러 이상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 * 1949~2015년 연평균 수출증가율(%) : (한국) 16.5 (대만) 15.6 (중국) 13.3 (일본) 12.3 (베트남) 11.8 (독일) 11.7 (홍콩) 11.3 (태국) 10.8
- 지난해 우리의 세계 수출비중은 3%대로 1948년(0.03%)에 비해 크게 상승
 - * 한국의 세계 수출 비중(%) : ('48) 0.03 → ('54) 0.03 → ('64) 0.07 → ('74) 0.5 → ('84) 1.5 → ('94) 2.2 → ('04) 2.6 → ('15) 3.2
- 수출상품 수, 1인당 수출액, 무역업체 수도 크게 증가하며 수출 저변이 확대

세계 수출국 순위 비교

수출 규모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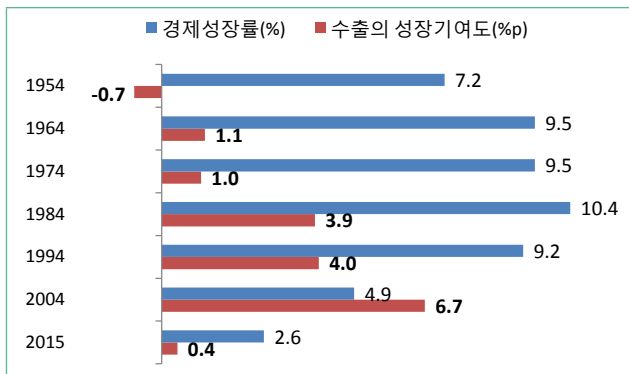
02. 경제성장의 원동력, 위기 시 구원투수

- ◎ 무역은 지난 70년 동안 한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진입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

- 한국경제는 무역을 통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빈곤과 저개발에서 탈피하고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¹⁾에 가입
- 무역은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외화획득,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구조 개선에도 큰 역할을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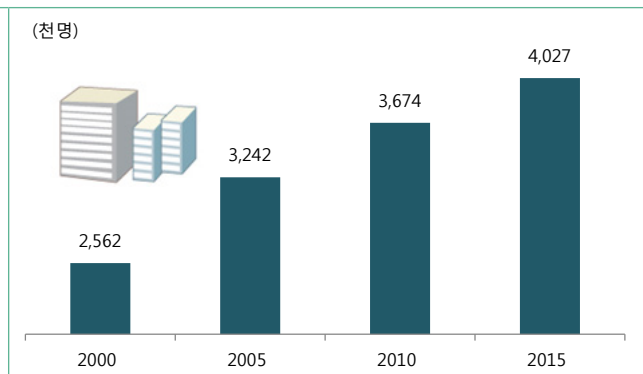
* 한국의 무역의존도(%) : ('64) 16.7 → ('74) 60.2 → ('84) 64.2 → ('94) 46.9 → ('04) 62.5 → ('15) 69.9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수출의 취업유발 인원



자료 : 한국무역협회

◎ 1차('73~'74)·2차 석유파동('78~'80), 아시아 외환위기('97), 글로벌 금융위기('08) 등 경제위기 때마다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구원투수로 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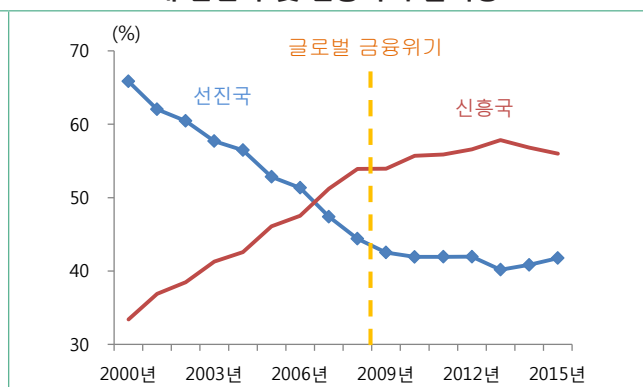
- 1·2차 석유파동 : 중동으로 건설투자를 확대하면서 이들 국가로의 수출이 급증
* 대중동 수출증감률(%) : ('73년) 134 → ('74년) 174, ('79년) 10 → ('80년) 61
- 아시아 외환위기 : 무역흑자가 외환보유고 확보에 결정적으로 기여
* 1999~2015년 중 무역흑자 누계(4,626억 달러), 외환보유액 증가액(2,939억 달러)
- 글로벌 금융위기 : 중국(경기확장 정책) 및 신흥국(고유가로 수입수요 여력 확대)으로의 수출 확대 전략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가 회복
* 수출비중 (%,'07년 → '15년) : (선진국) 47.4 → 41.8 (신흥국) 51.2 → 56.0

무역수지 및 외환보유액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대 선진국 및 신흥국 수출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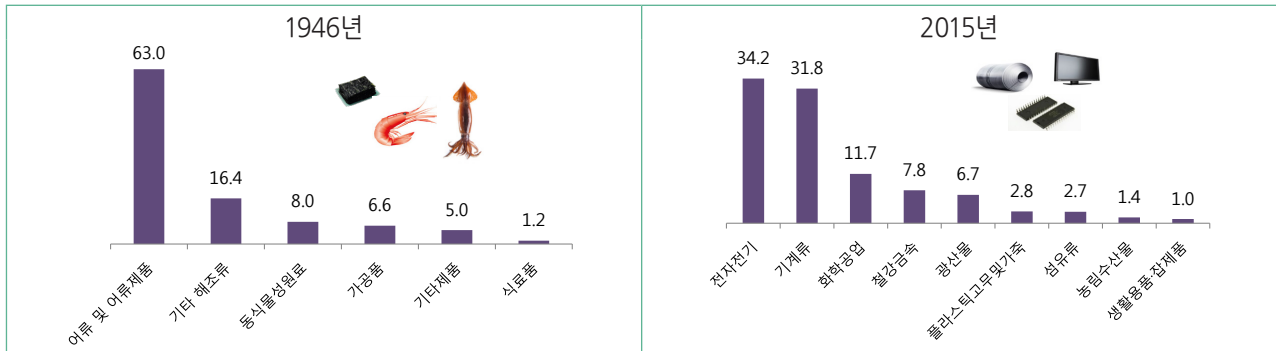
1)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

03. 1차 상품에서 첨단제품으로

● 수출 품목은 과거 1차 상품이 대부분이었으나 IT제품 등 첨단제품 중심으로 질적 고도화

- (1946년) 한천, 오징어 → (60년대) 중석, 철광, 생사 → (70~80년대) 섬유류, 합판, 가발 → (90~00년대) 자동차, 선박, 합성수지, 컴퓨터 → (2010년 이후)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석유화학

수출상품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 IT제품, 중화학 제품은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세계 수출시장을 선도
 - 철강(3위), 반도체(4위), 통신장비(4위), 자동차(5위), TV(9위) 등에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상위를 차지(2013년, SITC 3단위기준)

주요 수출품목 추이

(백만 달러, 비중 %)

	1961년		1980년		2000년		2015년	
1	철광석	5.3 (13.0)	의류	2,778 (15.9)	반도체	26,006 (15.1)	반도체	62,916 (11.9)
2	중석	5.1 (12.6)	철강판	945 (5.4)	컴퓨터	14,687 (8.5)	자동차	45,794 (8.7)
3	생사	2.7 (6.7)	신발	908 (5.2)	자동차	13,221 (7.7)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40,107 (7.6)
4	무연탄	2.4 (5.8)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620 (3.5)	석유제품	9,055 (5.3)	무선통신기기	32,587 (6.2)
5	오징어	2.3 (5.5)	음향기기	593 (3.4)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8,420 (4.9)	석유제품	32,002 (6.1)
6	활선어	1.9 (4.5)	인조장섬유직물	564 (3.2)	무선통신기기	7,882 (4.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30,088 (5.7)
7	흑연	1.7 (4.2)	고무제품	503 (2.9)	합성수지	5,041 (2.9)	자동차부품	25,550 (4.9)
8	합판	1.4 (3.3)	목재류	485 (2.8)	철강판	4,828 (2.8)	합성수지	18,418 (3.5)
9	미국	0.2 (0.5)	영상기기	446 (2.5)	의류	4,652 (2.7)	철강판	16,458 (3.1)
10	돼지털	0.1 (0.3)	반도체	434 (2.5)	영상기기	3,667 (2.1)	플라스틱 제품	9,135 (1.7)
	10개국	37.9 (92.7)	10개국	8,321 (47.5)	10개국	97,513 (56.6)	10개국	313,113 (59.4)

주 :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요 상품 최초 수출

섬유	1959년	동광 메리야스가 미국으로 스웨터 300장 수출
신발	1962년	국제상사, 동신화학공업주식회사가 미국, 캐나다 등으로 23만 8천 달러 수출
가발	1964년	1만 4천 달러 수출
석유화학	1966년	대한석유공사가 2천 배럴 수출
선박	1967년	대한조선공사·대선조선이 바지선 30척 베트남 수출
철강	1967년	부산철광공업이 강관 수출 시작
자동차	1976년	포니자동차 에콰도르로 5대 수출
반도체	1970년	아남반도체 21만 달러 미국으로 수출
휴대폰	1992년	삼성전자 6억 달러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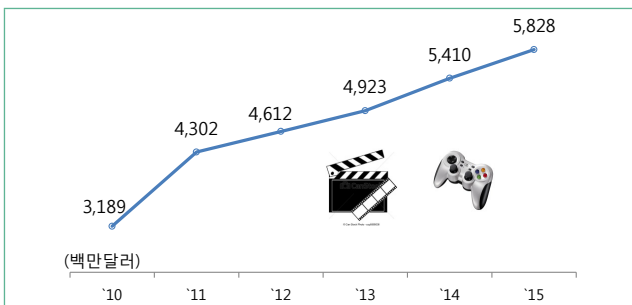
◎ 최근 우리 수출상품의 영역이 제조업 제품 위주에서 소비재, 문화콘텐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서비스 수출도 상승세

- 한류열풍으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문화콘텐츠, 패션의류, 식료품, 화장품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

* '11~'15년 연평균 수출증가율(%) : (뷰티제품) 29.2 (핸드백 및 신발) 17.4 (패션의류)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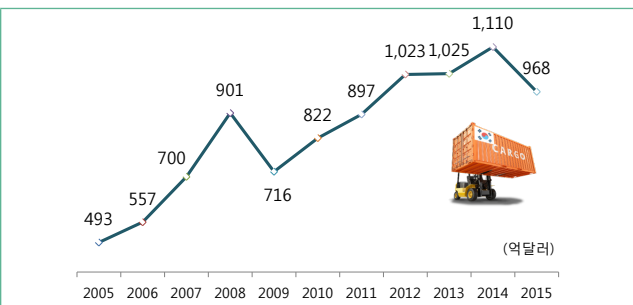
- 서비스 수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총 수출의 18%를 차지

문화콘텐츠 수출 추이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서비스 수출 추이



주 : 상업서비스 기준

자료 : WTO

04. 세계 시장을 무대로 뛰다

◎ 수출대상국은 1946년 2개국*에서 2015년 248개국²⁾으로 확대

* 중국(81.4%), 일본(18.6%)

- 수출 상위 10개국에 대한 비중은 1960년대 90%대에서 2015년 67%대로 하락하면서 수출 대상국이 다변화

- 1960년대 미국, 일본으로의 수출비중이 50~70%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 이후로 그 비중이 30%대로 축소된 반면 중국, ASEAN이 주요 수출상대국으로 부상

- 과거 수출비중이 미미했던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의 수출도 확대되고 있음

* 수출비중(% , '88 → '15) : (중동) 5.0 → 5.8 (중남미) 2.6 → 5.8 (대양주) 1.7 → 3.9 (아프리카) 1.0 → 1.4

2) 관세청 통관자료

주요 수출 상대국 추이

(백만 달러,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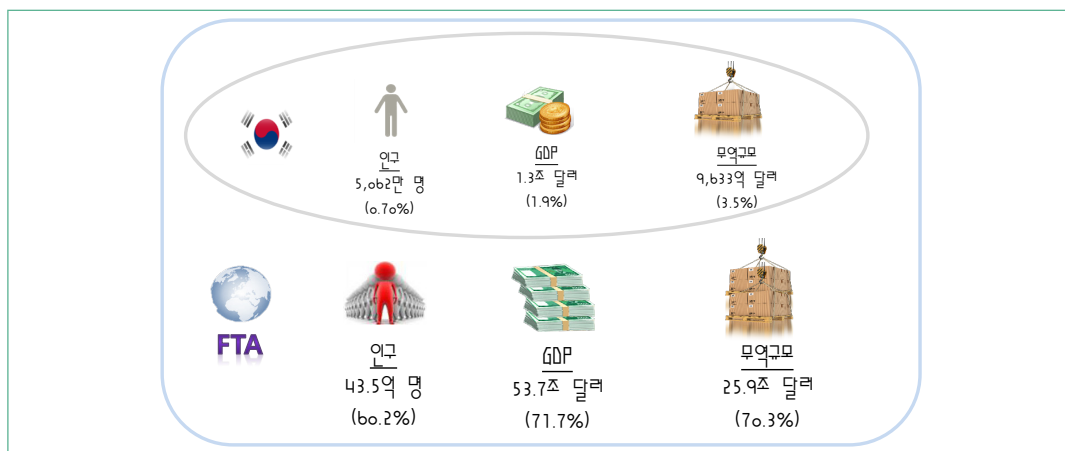
	1961년		1980년		2000년		2015년	
1	일본	19.4 (47.4)	미국	4,607 (26.3)	미국	37,611 (21.8)	중국	137,124 (26.0)
2	홍콩	7.4 (18.1)	일본	3,039 (17.4)	일본	20,466 (11.9)	미국	69,832 (13.3)
3	미국	6.8 (16.6)	사우디	946 (5.4)	중국	18,455 (10.7)	홍콩	30,418 (5.8)
4	영국	1.4 (3.4)	독일	876 (5.0)	홍콩	10,708 (6.2)	베트남	27,771 (5.3)
5	독일	1.0 (2.4)	홍콩	823 (4.7)	대만	8,027 (4.7)	일본	25,577 (4.9)
6	이탈리아	0.6 (1.5)	이란	618 (3.5)	싱가포르	5,648 (3.3)	싱가포르	15,011 (2.8)
7	대만	0.5 (1.3)	영국	573 (3.3)	영국	5,380 (3.1)	인도	12,030 (2.3)
8	싱가포르	0.5 (1.2)	인도네시아	366 (2.1)	독일	5,154 (3.0)	대만	12,004 (2.3)
9	태국	0.2 (0.5)	네덜란드	350 (2.0)	말레이시아	3,515 (2.0)	멕시코	10,892 (2.1)
10	필리핀	0.1 (0.3)	캐나다	343 (2.0)	인도네시아	3,504 (2.0)	호주	10,831 (2.1)
	10개국	37.9 (92.7)	10개국	12,541 (71.6)	10개국	11,468 (68.8)	10개국	351,490 (66.7)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72조 달러의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감

- 현재('16.7.15일) 15개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전세계 52개국³⁾과 FTA 발효 중이며, 미국, EU, 중국, ASEAN 등 세계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한 52개국의 무역규모는 전세계의 70.3%를 차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한 교역국의 경제규모



주 : 1) ()는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2) 한국은 2015년, 그 외 FTA 체결국(52개국)은 2014년 기준

자료 : IMF, World Bank

3) 칠레, 싱가포르, EFTA(4), ASEAN(10), 인도, EU(28),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05. 최근 우리 수출의 한계와 도전 과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수출의 성장속도는 느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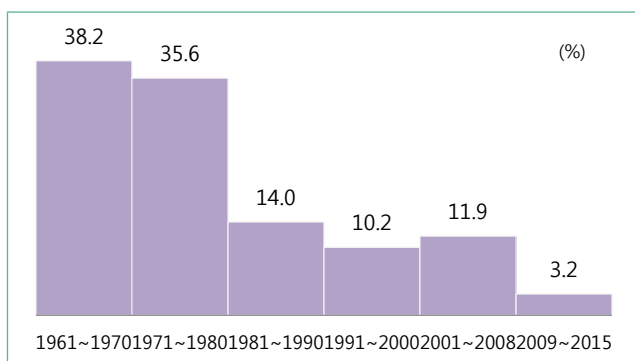
- 수출은 1960~70년대 30% 이상 증가, 1980~2008년까지 10% 이상 증가세를 보여 왔지만, 2009년 이후 3%대로 급락

● 우리 무역의 성장 정체 원인으로 세계 저성장 기조, 세계 교역 성장둔화 등 대외적 요인이 대두

* 세계경제 성장률(% , IMF) : 5.7('07) → 3.4('12) → 3.3('13) → 3.4('14) → 3.1('15) → 3.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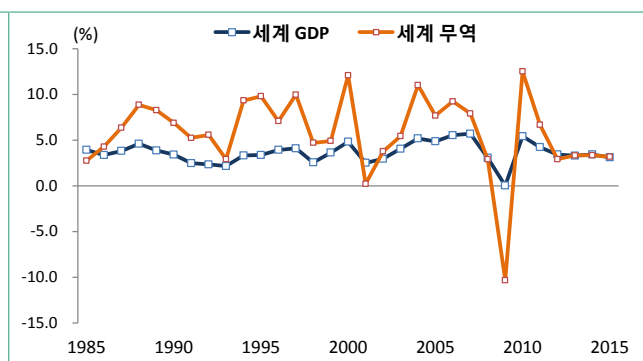
*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무역 증가율은 세계경제 성장률에 2:1의 비율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1:1로 축소

연대별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세계경제와 무역 증가율(%)



자료 : IMF(2016)

● 대기업 수출 집중, 주요 수출품목의 경쟁력 약화, 소비재 및 서비스 수출기반 취약, 주력산업의 해외생산 확대 등 우리 무역의 구조적 한계도 직시할 필요

- 대기업 수출액 비중은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율은 2.6%로 미국, 독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대기업 수출비중(%) : ('95) 60.2 → ('00) 63.1 → ('05) 67.5 → ('11) 66.8 → ('15) 63.9

* 중소기업 수출참여율 : 미국 ('14) 5%, 독일 ('14) 10%, 한국 ('15) 2.6%

-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이 상위 10대 품목에 집중되어 있고, 이미 평균 22년 전 10대 품목으로 자리매김하여 주력품목의 고령화*가 심각

* 철강, 자동차, 반도체 : 38년, 선박 29년, 합성수지 20년

- 부가가치가 높은 소비재 및 서비스의 수출 기반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

* 소비재 수출비중('15년, UN Comtrade, %) : (프랑스) 29.8 (중국) 29.8 (독일) 26.0 (한국) 15.6

* 서비스 수출비중('15년, WTO, %) : (미국) 15 (독일) 5 (한국) 2

- 경쟁국 대비 높은 인건비,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 등으로 주력 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출 증가세 유지가 어려움

* 해외생산 비중(% , 매출액기준; '15.5월 업종별 협단체 설문조사) : (가전) 77.6(디스플레이) 57.3(자동차) 40.2 (섬유) 26.2 (반도체) 17.0

-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AI, IoT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미래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은 우리 무역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도전과제임
 - 전자상거래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무형 데이터 교역, 소기업 및 개인 참여 확대,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동, 무료 콘텐츠의 증가 등 국제무역의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할 것임

06. 무역 70년에 대한 평가와 대응전략

- 지난 70년간 한국무역은 성장, 흑자, 상품고도화 및 시장다변화를 모두 이룸
 - 1946년 수출 354만 달러, 수입 6,072만 달러에서 2011년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고, 교역국 확대, 수출상품 고도화 등 질적으로도 개선
 - 세계무역 10대국에서 자원수출이나 재수출입이 아닌 제조기반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이룬 나라는 한국, 중국, 독일 세 나라 뿐
- 한국무역이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온 국민의 ‘무역입국’에 대한 의지와 자유무역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는 올바른 정책 선택이 주요 요인임
 - 높은교육열과우수한인적자원,세계시장을무대로경쟁에나선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기반으로 근로자, 기업, 정부가 한마음으로 노력
 - 올바른 정책의 선택 : 당시 개도국 경제발전 전략의 주류였던 수입대체에서 벗어나 수출 주도 성장전략을 추진
- 한국무역이 안고 있는 한계와 거세질 도전에 불구하고 무역은 미래 한국경제 성장 전략의 중심이 되어야 함
- 무역의 양적성장의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우리 무역을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외변수의 영향에도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수출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업그레이드 하여야 함
 - [중소기업의 수출저변 확대] 디지털 경제 확대로 창의성·민첩성·Global로 무장한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확산
 - [제조업의 스마트화] ICT산업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해 제조공정의 효율화, 첨단 프리미엄 산업 창출, 제조업의 서비스화 필요
 -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MICE,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관광, 금융, 교육 등 핵심 서비스 산업에 ICT 기술을 결합하거나 타 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 [전자상거래를 수출의 핵심경쟁력으로 활용] 기존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글로벌화,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같이 소비자와 공급자가 제품의 기획, 생산, 유통, 홍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의 선점 및 활용
- 지난 70년간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통해 경제 기적을 일궈왔듯이 앞으로도 미래 무역흐름과 산업 및 기술발전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무역의 성장을 지속해 나가야 함